

교회 3대 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헌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라디아서 6장
6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헌교회 「주간충헌」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시온성대행진 6월 6일 발진

15일간 새벽기도회, 각종행사 추진

충헌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오는 6월 6일부터는 제2의 영적 각성운동인 시온성대행진이 발진된다.

「교회갱신과 민족복음화」란 주제와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 표어로 진행될 시온성대행진은 6월 20일까지 계속된다.

매일 새벽기도회(오전 5시-45분), 저녁특별집회, 충헌교회학교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종진군의 날, 헌신예배, 승전감사예배 등으로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일을 위해 동원조직을 했는데, 그 명칭은 개성행진대를 비롯하여 황주, 사리원, 해주, 평양, 진남포, 선천, 신의주, 원산, 함흥, 중앙진, 청진, 회령, 온성으로 명명했다.

감독은 교구교역자, 행진대장은 장로, 행진부대장은 권사, 협력구역장, 행진반장은 구역장, 그리고 대원은 교인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오후7시엔 참모장을 비롯한 기획팀이 회의를 가졌으며, 전체적인 진행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다음호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시온성대행진 본부는 참모를 보강하여 완전조직을 발표했다.

조직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김창인목사, ▲사령관: 이종윤목

사, ▲참모장: 오태희장로, ▲부참모장: 윤용규목사, 우기전장로, ▲기획참모: 김준태목사, 김익경목사, 박승준장로, 김구형집사, 김단용집사, 박호지집사, ▲행정참모: 이원길목사, 구명신전도사, 차신득장로, 윤성철장로, 노영숙권사, 양종섭집사, ▲동원참모: 김학진목사, 오정현장로, 이창호장로, 김여순집사, 강동화집사, ▲행사참모: 김영구목사, 강은원장로, 최란수권사, 최윤덕집사, 김용숙집사, ▲홍보참모: 김연이전도사, 김차생장로, 손경수장로, 이승철집사, 조혜순집사, 이인선집사, ▲봉사참모: 김성윤목사, 정복인전도사, 문홍구장로, 방계운권사, 문명애권사, 권명옥집사, 김태현집사

3교구 철야기도회
26일 베들레헴홀서

3교구(교구장: 오진국장로, 지도: 송태근목사)는 오는 5월 26일(금) 오후11시 철야기도회를 베들레헴홀에서 갖는다.

이날 철야기도회에는 1부 예배, 2부 교회와 국가와 가정을 위한 특별기도와 합심기도, 그리고 3부엔 3교구 성도간의 교제와 티타임이 있을 예정이다.

3교구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충헌올림픽 개회식 광경(관련기사 2, 3, 4면 참조)



▲군포에 있는 시립소년원을 방문하여 원생들과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2부 회원들.

카메라초점

충헌올림픽은 계속해서 대표선수 선서(모세팀 이종호)가 있었고, 심판위원 선서를 위원장 강은원장로가 선서했다.

공군 의장대의 20분간의 퍼레이드가 있는 후 각팀별 응원 시범, 11시부터 게임에 들어

「충헌올림픽」 성황리 폐막

충헌가족 모두의 마음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려

충헌올림픽이 하나님 은혜로 예정한 날짜, 시간, 장소(정신여고 교정)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폐막했다.

5월 12일 오전 9시30분 공군군악대의 주악에 맞춰 입장식이 거행되었다.

화창한 날씨, 운동하기에 가장 알맞은 기온, 비온 뒤의 깨끗한 하늘과 땅을 축복으로 내려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그동안 준비해왔고, 기도하고 기획했던 영광과 환희의 순간이 충헌올림픽 피켓을 선두로 질서있게 진행되었다.

충헌올림픽기가 부대회장 8명(위원장급=임광식장로, 윤종성장로, 이태규장로, 이웅선장로, 우기전장로, 김영개장로, 김은호장로, 이영세장로)장로들에 의해 들어오고, 엘리야팀(4, 5, 8, 11교구), 모세팀(1, 7, 13교구), 바울팀(2, 9, 14교구), 베드로팀(3, 6, 10, 12교구) 순으로 들어오면서 각 교구별로 가장행렬도 진행되기도 했다.

계속해서 충헌햇불이 청년1부 회장 홍윤석

군과대학부 부회장 이정은 양에 의해 본부석 대회장 및 명예대회장에게 인계되자 온 교인들의 「할렐루야」합성과 더불어 군악대의 광파례가 울려 퍼지고, 8백개의 색깔 풍선이 하늘높이 올라갔다.

찬송가 390장「십자가 군병들아」를 모두가 합창한 뒤 개회예배를 드렸다.

조직위원장 오진국장로 사회로 진행, 당회서기 윤명식장로가 기도했다. 윤장로는 기도에서 「밝은 햇살, 푸른하늘 아래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충헌올림픽을 은혜롭게 치르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랑의 실천과 충헌가족의 화합,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명예대회장 김창인 원로목사는 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봉독한 후 「십자가정병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복음화에도 앞장설 수 있는, 질서정연한 올림픽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교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개회예배를 마치고 이종윤 위임목사의 개회선언이 있었다.

이어서 「자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받은 충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형제됨을 확인하고 세계를 위하여 삼아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 절대신앙, 절대복종, 절대충성을 다짐하는 제2회 충헌올림픽이 지금으로부터 개회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라고 선포했다.

갔다.

구원열차 등 9개 종목의 경기가 끝난 뒤 성적발표가 있었는데 게임 믿음상엔 바울팀, 소망상엔 모세팀, 사랑상엔 엘리야팀 그리고 충헌 상엔 베드로팀이 각각 차지했다.

폐회식은 이종윤위임목사를 중심으로 충헌의 가족이 손에 손잡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다같이 합창한 후 "우리는 미래세계를 위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기쁘게 일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폐회사를 한 뒤 축도로 마쳤다.

충헌올림픽 각종 성적표

	게	임	응	원	가장행렬	
믿	음	상	바	울 팀	엘 리 야 팀	10교구
소	망	상	모	세 팀	베 드로 팀	11교구
사	랑	상	엘	리 야 팀	바 울 팀	3교구
충	헌	상	베	드로 팀	모 세 팀	

지 상 강 단

본문/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는 본래 세상에 속하였고 죄악 가운데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합당한 삶 중에서 먼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시며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주님을 믿으며 세례를 통하여 한 주님께로 연합되었으며 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한 주님께서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입니다.

다.

이처럼 교회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것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나 인간이 결코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성령의 하나

순종합니다. 사람에 대하여도 같은 태도를 취하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로 대할 때 하나됨을 나타내게 됩니다.

[2]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는 인내의 덕을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참는 그 성품, 좀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누가 상처를 입혀 아파도 참는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을 때에 하나됨을 나타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의 사람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 간에는 언제나 화평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됨을 힘써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즉 대인관계 속에서 실제로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1]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달아 항상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없이

[3]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책에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혹 실수를 해도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용납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자꾸 보이면 이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있게 됩니다. 충현 올림픽을 치루었습니다. 이 행사의 기본정신은 화평이요 하나됨을 나타내는데 있었습니다.

교회당 안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이미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용납으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성윤(목사·제12교구·중동부지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충현올림픽



좋은 날씨를 하루종일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안겨주었던 집행위원들의 가슴을 통찰하신 하나님은 또 한번 감사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십분 발휘하여 충현올림픽의 광과래를 정신여고 교정에서 공군군악대의 주악으로 열었습니다.

충현올림픽 피켓질의 선두입장으로 제작된 행사는 각팀 각교구에서 뽑힌 한복차림의 피켓질이 천사처럼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특히 3교구의 피켓질인 어느 편을 하루종일 같이 있게 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기뻐하며 한복을 입은채로 하루종일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장행렬에서 「민음상」을 탄 11교구(교구장: 장은환장로)는 나귀 대신에 현대적 감각을 살려 오토바이를 타고 힘성하산 예수님이 만족한 기분으로 본부식을 지날 때 모든 생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오토바이, 터키 팔에 끼니 더욱 자기가 불편하였습니다.

궁중헌례복을 입고 정중하게 앞뒤로, 본부

석에 큰 절을 한 「테리파이」목사 부부의 아침(?)이 있었던 11교구(교구장: 김은호장

맑은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의무실은 개점 휴업상태 공군군악대 주악, 의장대 퍼레이드 일품

로)의 각국을 대표하는 의상 가장행렬도 정상이 참작되어 소망상을 뒀으며 각 나라의 인종을 소상하게 돌보아야 할 하나님의 고민을 잘 드러낸 2교구(교구장: 김원찬장로)의 가장행렬도 주제만큼은 좋았습니다.

공군의장대 사열은 총검 위에 예쁜 장식을 달고 갖가지 포기를 보여준 것이었는데, 레이스를 탄 총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총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800명이 함께하는 「구원열차」를 시작으로 점수를 올리는 게임이 「모세」 「엘리아」 「바울」 「베드로」 4개팀으로 나뉘어 열면 공방전에 돌입하였고 모든 약자와 최대의 인력을 동원한 「포제」팀의 총원은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줄줄이 시간도 주지않고 열성적이

어서 교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식 관판을 걸고 영업허가 없이 유변히 의료진으로 문을 연 1일 의무실은 상비약도 완전 구비되었고, 외상을 치료하기 위한 구급대도 준비했으나 개점 휴업상태이어서 저녁 시간이 다 될 무렵에는 폐업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아침먹고 소화안된 환자와 점심을 급하게 드신 분들의 치료 덕분에 병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벌행한 사람들끼리의 올림픽을 거부하고 조금 불편한 사람들도 참여케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한 「사랑부」, 「애바다부」의 "축, 충현올림픽" 게임은 정말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꽤나 꽤나해도 가장 즐거운 시간은 먹고 파는 시간이었다. 것 같습니다. 개연마다, 구역마다 경쟁적으로 푸짐하게 차려온 식단은 정말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맛있게 드시는 장면은 천국이었습니다. 다만 간혹 죄롭게 혼자 드시는 성도를 보게 될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예날 4교구 담임교역자이신 김준태목사님의 생신에서 장로님들과 만찬을 즐기시는 곳을 습격해서 동석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역자와 장로의 「수퍼축구」 대결에서 장로팀이 승리한 것은 뜻대 송구한 일이라고 미안해하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거북이 탈레이정기는 사회자의 조크때문에 하마트면 순위가 변경될 위험마저 있었으나 바르게 고쳐진 존극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없이 수고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량, 경비, 봉사에 전념했습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각팀은 많은 인원과 물자를 동원해서 우승을 다짐했는데, 자금출처(?)를 조사당할 만큼 많은 준비를 한 팀도 있었고, 원로 김창민목사님의 개회말씀에 경기는 법대로, 심판도 공정한 판결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만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참여도 문제에 대해서 못내 섭섭해 하신 준비위원장 오진국장로님의 심정도 이해해 드려야겠습니다.

강북에 사는 교구들의 단합과 강남에 사는 분들의 개인주의도 지적해 두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두행제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 모두가 「충현가족」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한 결속과 전진을 다짐하자고 말씀하신 대회장 이종윤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교육, 선교, 구제의 세 가지를 더욱 깊고 넓게 확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수고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광신(장로·본보 편집위원)

사진으로 보는 제2회 충현올림픽 이모저모



▲ 충현햇불을 인계받고 "할렐루야" 선창하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이종윤 위임목사



▲ 충현올림픽 기가 8명의 장로들에 의해 입장하고 있다.



▲ 본부석의 명예대회장 대회장 내외분과 당회서기 운영식장으로



▲ 선수 선서하는 대표선수



▲ 심판위원 선서하는 강은원 심판위원장



▲ 개회선언하는 위임목사 이종윤 대회장



▲ 가장행렬의 한장면(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 줄다리기 하는 장면



▲ 유치부 꼬마들이 엄마와 함께 마스게임 연출



▲ 공군군악대의 주악에 맞춰 입장식 거행



▲ 슈퍼축구 게임 앞두고 양팀의 본부석 경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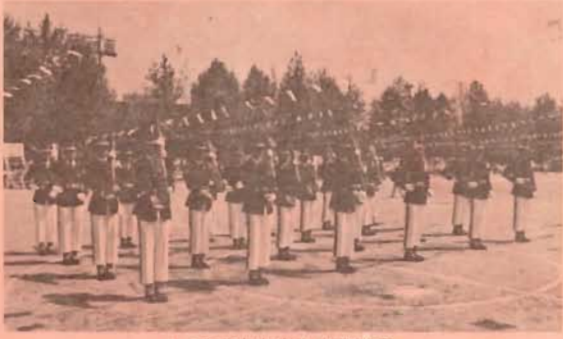
▲ 응원에 열중하는 각팀들



▲ 한복입고 가장행렬하는 테리파이 목사 부부



▲ 아드니엘 싱얼롱팀의 찬양모습



▲ 공군의장대의 퍼레이드

◎ 푸른하늘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경건생활



강사 정규남목사

(본교회 협동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학장대리)

5월 28일 11시 새가정부실

(교우 여러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크리스찬 가정이 되시려면...

가정의 영적 성숙-

이 지식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또 배워야 합니다.

가정의 영적 순결-

여러분의 가정이 건전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기 <특강>에 초청합니다.

교회학교 새가정부 부장 박승준장로

충현올림픽 낙수

☆ 두개의 애드벌룬, 만국기가 나부끼고 올림픽 현장인 정신여고 운동장에는 충현 올림픽을 홍보하는 애드벌룬 두 개가 동서에 높이 떠있고, 본부석 중앙으로부터 펼쳐진 만국기가 나부끼 자못 흥분이 감돌고.

☆ 피켓길의 한복차림 너무 이뻐다.
충현올림픽 피켓길 최인자양을 비롯한 각팀별, 각교구별 피켓길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입장해 설사 미스코리아 선발전같은 기분을 갖기도. 「미스충현」이 이렇게 많을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 게임에서 믿음상 탄 바울팀 단장 마성락장로(우)와 부단장 박영식장로(좌)

☆ 가장행렬도 갖가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볼만한 구경은 뭐니 해도 가장행렬.

4교구는 천국문을 상징하는 꽃아취가 등장

했는가 하면 꽃가마에서는 비둘기가 날고 비누방울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장관을 연출, 5교구는 성경구절 퍼레이드를, 8교구는



▲ 응원에서 믿음상 탄 엘리야팀 단장 박철환장로(좌) 부단장 이종국장로(중) 총감독김익경목사(좌)

예루살렘 입성의 왕의 행진을 표현했으며, 11교구는 세계는 나의 교구임을 상징하듯 각 나라 고유의상이 등장하여 이채.

1교구는 예수님 십자가 상징한 교회학교 학생들의 빨간꽃술의 파노라마가 전개되고, 7교구는 북청사자춤과 충현방주(노아와 그 가족들)의 등장, 13교구는 여리고작전 묘사, 2교구는 사랑의 띠인 "하나로, 세계로, 주께로"의 프랑카드가, 9교구는 피켓과 이복음을 위한 십자가 고난 상징을, 14교구는 여리고작전, 6교구는 예수님의 고난 상징 10교구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을, 12교구는 홍해작전과 십계명 현수막 등의

연출이 볼만했다.

☆ 4대가족이 한자리에 참석

14교구장인 마성락장로는 4대가족 모두가 참석하여 이채. 마장로님 부모, 아들, 손자 등이 참석하여 충현올림픽을 더욱 빛내기



도.

☆ 특수교육부 경기에 박수갈채

본교회 교회학교 예배다부, 사랑부 학생들이 「충현교회 올림픽」 글자맞추기 게임을 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교역자, 장로들이 친히 건네주는 선물을 받고 좋아하기도.

☆ 유치부 마스게임도 볼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약 20분간 진행된 유치부 어린이와 어머니들의 마스게임, 꼭두각시춤, 그리고 뽕춤은 너무 좋았다고.

☆ 교역자·장로들의 친선게임

본교회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친선게임으로 슈퍼축구를 전후반 6분간 진행했는데 결과는 2대1로 장로팀이 이겼다고. 이겨서 너무 송구스럽다는 것이 장로들의 뒷얘기.

☆ 시각 장애자의 특송

시각장애자인 김희정군이 친히 나와 악기를 타며 노래를 불러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 올림픽 끝난 장소를 깨끗이 청소

오후5시30분 모든 게임이 끝나자 앉았던 자리의 쓰레기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성도들의 손길도 너무 곱다.

학교 운동장 내의 모든 운동기구들을 제자리에 갖다놓고, 저녁늦게까지 수고한 봉사위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충현올림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역예배를 위한

1989년 5월 26일(금)

충현다락방

교구위원회 제공

제21과 남편과 아내

성경: 에베소서 5:22-33

요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찬송: 198, 228장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며 부부관계는 교회와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을 잘 받아 드리고 그 바탕 위에서 부부생활을 하면 축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교됩니다.(24, 25)

이것은 부부관계가 매우 신성하고 거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피를 흘리시므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결혼을 육체적인 관계로만 보거나 서로 필요에 따라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죄악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희생을 통하여 세워졌으며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시며 양육하십니다. 이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을 해야 하고 남편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2.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23)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에서 여자의 지위를 남편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고전 11:3)

머리는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 담긴 곳이며 지각과 정서의 샘이 되는 곳으로 우리 몸의 어느 부분 보다는 뛰어나고 우선이 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남자에게 아내를 다스릴

권리를 주셨습니다.(창 3:16)

그러므로 아내는 상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3. 부부는 한몸입니다.(28, 29)

한몸이라는 의미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대인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성격적인 차이가 있으면 헤어질 생각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부가 한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여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반문하며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도 이를 인식하고 기쁜 마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부부관계의 원칙을 따라 사랑과 복종의 조화를 이룰 때에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인 부부가 되고 서로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함께 생각합시다.

1. 아내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입니까(22)?
2.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는 무엇입니까(25)?
3. 남편은 아내를 왜 귀히 여겨야 합니까(벧전 3:7)?
4. 현대 신자들이나 나의 부부 생활 중 어떤 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 됩니까?

■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신성하고도 거룩한 부부관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처럼 신비롭고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 아내는 교회가 주께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